

2018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3.29.(목) 오전 10:30~11: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심층성 확보

- 전환기적 이슈인 미투 관련 공론장의 다양한 의견 소개 미흡. 원인과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함. 전통적 가부장 사회,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고, 가족 학교 직장 등 모든 분야에 고착된 남성우위 권력 구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바 새로운 시각,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는 의견 발굴 요망(권영후 부위원장)
- 기계적 중립유지만을 고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다양한 견해가 공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언론사가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담보되어야 좀 더 다이내믹할 것임(이우영 위원)
- GM 사태 관련 사측 입장 강조, 노조 입장 소홀. 양자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유도. 일방의 희생 강요하는 보도 등은 지양해야함. 사태가 발생한 배경, 역사, 양측의 공과와 입장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성폭력 담론 심층 추적과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보도 소홀. 성추행,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용어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강간 문화, 피해자에게 깊이 내면화된 트라우마 등이 부각되지 못함. 가해자에게 면죄부 줄 수 있는 기억 흐리기 변명, 합리화, 법꾸라지 행태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젠더 폭력과 페미니즘의 이해 제고, 성차별 구조 해체와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심층 취재가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미투 운동이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보도 전략 정립. 선정성, 지루하다는 프레임, 남성의 반격과 반페미니즘, 가짜뉴스 등 경계. 가짜 뉴스 판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지속 보도, 미디어 비평과 교육 유도. 일베 등 성차별 뉴스 진원지, 인간의 관음증 등 사례별로 해부해보면 좋겠음(권영후 부위원장)
- 공장별 상황에 대한 심층보도의 부재. 부평공장과 다른 지역 공장의 경쟁력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비교. 전문가들은 부평공장 경쟁력, 잠재가치가 높아 타 공장과 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일부 전문가 의견인 GM 본사의 미래전략(자율 주행차와 전기자동차 가능성)과 완전 철수시 대안 제시가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미래형 자동차 산업 참여를 구상하는 기업을 소개하고. 군산 공장의 경우 현재

발생되는 문제와 정부 대책에 초점이 맞춰 있으나 전문가나 현지 시민들의 대안 의견이나 미래 전략에 대한 조명은 부족했음→폐쇄의 피해와 함께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정부 개헌안 발의 관련 정상회담 관련/낙관적, 비관적 전망 소개하면서 양극단에 치우친 주장을 노출했음. 강경 반대파의 교묘한 선전술에 유의해야하며 정부 준비와 대책, 관련 4강의 움직임을 소상히 소개하여 회담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야 함. 개헌안 발의 관련/정치적 공방에 치중한 보도, 심층 해설은 미흡했고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 관련 핵심 논점을 지속적으로 정리 해설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2) 보도의 역할과 균형 제고하고 추측성 보도 지양해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여론 반응 관련 관점 없는 사실보도에 치중. 적폐청산과 표적수사 논란을 기계적 균형에 맞춰 다뤄진 느낌임. 보복수사와 보복의 악순환 프레임을 경계해야 함. 산업화 시대의 명암(성장과 부정부패), 지대추구 사회 병폐에 관한 성찰과 역사교육 차원의 탐사보도 부재였음(권영후 부위원장)
- 정봉주, 민병두 관련 익명고발의 기사화, 진실 공방 의혹 빌미 제공→선정성 경쟁→알리바이 확인→은퇴선언, 실명고발이 미투의 전제조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권력관계의 약자 입장인 피해자 관점에서 최대한 접근해야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선거 국면에서 명예훼손죄, 비방 죄로 재갈을 채울 가능성 경계하고, 익명고발에 따른 선정적 추측 보도는 자제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공중파 티브이들은 시청률을 높이려 시청자가 많이 소구하는 올림픽 경기 생중계에 집중했음. 그 결과 국내외 일반 뉴스 보도에는 소홀했음. 공백을 상당 부분 채워준 게 연합뉴스TV였음. 연합뉴스TV는 동계올림픽 중 일반 뉴스를 지키는 수문장이었음. 물론 연합뉴스TV의 재정적 형편에 의해 강요된 것일 수 있음. 생중계를 하려면 막대한 대가를 주고 주관사로부터 중계권을 사야 했을 것임.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방송사들은 하이라이트 형태로 전할 수밖에 없었음. 이런 안타까운 형편이 연합뉴스TV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보도의 공공성을 지키는데 기여했을 것임. 그것이 의지나 철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불행하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음.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린 패럴림픽 보도에서도 연합뉴스TV는 다른 모든 방송과 마찬가지로 패럴림픽 경기 보도 및 중계를 소홀히 했음. 문제의 중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었다. 중계는 사실상 거저였음. 제천화재참사 때 기울었던 관심과 정성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었음. 연합뉴스TV를 포함해 방송들이 오죽 외면했으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패럴림픽 중계가 더 많이 더 소상하게 중계되도록 잘 살펴달라고 했을까 생각함. 실제로 대통령이 호

소한 3월12일까지 개막식을 제외하고, 지상파 3사는 현장중계와 녹화를 합쳐 한국방송 25시간, 엠비씨 16시간, 에스비에스 17시간 방송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광고가 붙는 극소수 인기종목에 국한된 것이었고, 대부분 경기는 시청률 낮은 시간대에 하이라이트 형태로 진행한 것이었음. 1992년 알베르빌 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한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의 신의현 선수가 역주하는, 그야말로 인간승리의 장면도 우리 국민들은 볼 수 없었음. 같은 기간 주요 나라들의 중계시간과 비교하면 우리 방송사들의 무관심이 어떠한지 잘 드러남. 일본은 같은 기간 최소 62시간, 독일은 생중계만 65시간을 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생중계만 거의 100여 시간에 이르렀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방영한 것이었음. 은연중 알보는 중국의 한 공영방송도 40시간이나 방송했음. “과연 패럴림픽 주최국이 한국 맞는가?”라는 한탄이 나올 만도 했음. 연합뉴스티브이도 그 대열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음. 한 사회의 성숙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크기와 비례함. 배려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게 공공의 눈이고 귀인 공영방송의 관심임. 어떤 공동체건 한 사회의 최약자는 장애인이다. 공공의 부담, 공공의 흑덩어리로 간주돼 외면당하고, 배제되기 때문임.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5%에 이르고 이 가운데 89%가 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후천적 장애인임. 비장애인 100명 가운데 4~5명은 언제든지 장애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환경임. 나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임. 어쩌면 기존의 장애인들은 우리를 대신해 장애의 천형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름. 지상파 방송들이 동계올림픽엔 집중하고 패럴림픽은 외면한 것은 장사 때문이었음. 보도채널이나 종편이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외면한 것도 마찬가지였음. 돈이 많이 들거나 돈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임. 이들은 연륜은 짧지만 상업적 이익만을 쫓는 선발 지상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답습하는 데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보였음.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공영채널마저 그러했으니 착잡함. 연합뉴스티브이만은 앞으로 그런 대열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대함(곽병찬 위원)

- 국민 경제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 같은 뉴스는 내용 보도에 더해서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석을 해서 보도하면 좋겠음. 전문가 의견, 패널 토론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뉴스도 필요하다고 생각됨(김석민 위원)

3)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 개선 필요

- 미투 캠페인 안희정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 자료화면으로 과도하게 노출. 김씨의 안희정 회의 출석 수행 장면, 타사 인용 등 노출사례 빈발. 2차 피해 감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길 바람(권영후 부위원장)
- 개헌안 뉴스 관련하여 청와대안, 각 당 입장 등을 잘 정리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은 연합뉴스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됨. 다만 패널이 내용을 설명

할 때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뉴스에 대한 집중이나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가급적 발언과 화면내용이 부합되도록 하면 좋겠음(김석민 위원)

- 미투를 계기로 붓물을 이루고 있는 성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도 원칙의 하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함. 연합뉴스TV는 3월7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사건 관련 보도를 할 때마다 피해자인 김지은씨 영상을 계속 내보내왔음. 특히 3월8일부터는 과거에 김씨가 안지사를 수행하는 영상을 찾아 내 집중보도했을 뿐 아니라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듯 김씨 얼굴에 하얀 동그라미 표시까지 해가며 노골적으로 부각시켰음.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같은 기사에서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오피스텔의 압수수색 사실도 보도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모자이크처리가 됐음. 김씨 얼굴은 오피스텔만큼의 보호 가치도 없다는 뜻인가? 김씨가 JTBC에 자발적으로 나와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김씨 얼굴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음.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다면 이런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임. 취재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각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배정근 위원)
- 화면 하단의 스크롤 뉴스와 관련하여, 스크롤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음. 뉴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많은 경우 스크롤이 계속 지나가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화면이 복잡한 느낌임. 또한 한 시간 뉴스에 같은 내용의 스크롤이 너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스크롤 뉴스 건수를 좀 더 늘려서 반복 횟수를 줄이면 어떨까 함(김석민 위원)
- 스크롤 자막에서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듯. 송파을 /송파 을 등으로 통일되지도 않음. 원칙을 지키고 통일해야 함. 또한 화면에서 하단 좌우스크롤 자막이 있는데 바로 위에 본 자막이 관심을 분산시킴. 이런 흐르는 포맷 보다는 스크롤 자막을 정지형으로 하여 전체 내용이 한꺼번에 바뀌는 포맷이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음. 여전히 자막에 철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임. 이재명 출마선언 보도 자막에서 경기를 정기로 표기했음(최신용 위원)
- 뉴스를 보면 같은 내용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막이나 보도상 실수가 바로 잡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 처음 실수에는 관대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뉴스의 품격이 떨어지고, 그런 뉴스를 보는 시청자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될 수 있음.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시청자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실수만이라도 바로잡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경상 위원)
- 기사의 제목에 큰 따옴표를 사용해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직접 인용구 제목은 국내 언론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는 관행임. 그러나 권위 있는 해외 언론사 중에는 취재보도 준칙이나 윤리규정 등을 통해 이런 제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많음. 그 이유는 첫째, 기사 제목은 그 기사에 대한 언론사의 주체적인 판단을 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임. 둘째, 기사에 등장하는

일부 취재원의 발언을 제목으로 하는 것은 특정 입장만 반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셋째, 그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 문제가 됨.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2007년 5.13 지방선거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를 통해 직접 인용구 제목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주목을 끌면서도 제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모든 직접 인용구 제목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도 없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은 분명함. 예를 들어 3월9일자 저녁 뉴스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검찰 출두 기사가 있었음<'불법자금' 홍문종 검찰 출석... "돈 받은 적 없다">. 기자들은 이 기사가 뇌물 수수를 부인하는 홍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것일 뿐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청자도 있을 것임. 따옴표가 있고 없고의 의미 차이가 기자들에게는 명확하겠지만 시청자 입장을 그렇지 않다. 홍의원이 부인했다는 중립적 제목으로 가는 것이 맞음. 직접 인용구 제목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배정근 위원)

4) 프로그램 기획 등 의견

- 주말 아침에 일주일간의 뉴스를 종합해 주는 보도 명품 리포트 맥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뉴스채널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뉴스를 뽑아서 상세히 정리하고 분석을 곁들인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다만, 시간이 없어서 매일 뉴스를 보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주말 아침 한 주일의 뉴스를 총정리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으로 보임(오준 위원장)
- 프로그램 제목의 '명품'이라는 단어가 보도 프로그램으로서는 생소하며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보도 뉴스를 다시 보여 주는 것 같은 선입관을 줄 수 있다고 보임(오준 위원장)
- 주요 소식들의 팩트 리포트는 반복이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단순 반복되는 경향이 강함. 새로운 팩트와 정보는 요즘 대부분 포털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팩트 전달이 차별성 없이 반복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정보전달 프로그램과 심층보도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뉴스쇼 성격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다양한 견해와 여론이 모여지는 프로그램이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반복되지 않고 변화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대 뉴스에서는 앞의 뉴스 시점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임(이우영 위원)

5) 뉴스 진행 앵커 및 출연자 관련

- 주말 아침에 일주일간의 뉴스를 종합해 주는 보도 명품 리포트 맥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뉴스채널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뉴스를 뽑아서 상세히 정리하고 분석을 곁들인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다만, 앵커(또는 보도담

- 당 기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진행하는 세팅은 안정감이 부족해 보이고 과도하게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음(오준 위원장)
- 젊은 층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이 거의 보이지 않음. 여성 출연진을 발굴, 보강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패널을 초청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음. 다만 현직 의원, 전 의원, 대변인 등 서로 대비가 되게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한쪽은 현직, 다른 쪽은 전직이면 입장 차나 발언의 강도가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또 정치인 위주로 토론하는 것도 내용에 따라 필요하지만 헌법학자나 정치학 교수 등도 참여해서 토론을 하면 좀 더 균형감 있게 전문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임(김석민 위원)
 - 2018. 3. 14. 오전 뉴스 방송과 관련하여 이날 오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예고 된 날이었고 아침부터 모든 방송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날임. 연합뉴스tv에서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서정욱 변호사와 오윤성 교수를 패널로 모셨던 것이라고 생각함. 이 이슈는 주지하다시피 매우 민감한 이슈였고, 특히 관련자들이 패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면서 여차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던 상황이었음. 그런데, 이날 출연자 섭외가 우선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기본적으로 서정욱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전무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임. 더군다나 서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관련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동안 서변호사는 여기저기 종편 패널로 출연하면서 일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섭외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 쓰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중요한 날 그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었음. 그런데, 서변호사와 함께 나오신 오윤성 교수님은 정치색이 상당히 약한 분이기도 하고, 특히 범죄프로파일러 관련 평을 주로 하시는 분이어서 정치색이 묻어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날의 패널로 나온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더군다나 서정욱 변호사가 상대패널로 나온다면 오윤성 교수님은 적당한 조합이 아니라고 생각함. '균형감각'과 '치우치지 않는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합뉴스tv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당일 서정욱 변호사를 섭외하면서 오윤성 교수를 섭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고 결국, 그날 방송에서는 방송사고 비슷하게 문제가 터진 걸로 알고 있음. 서정욱 변호사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자신의 소신껏 발언을 하였는데 오윤성 교수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따라서 방송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서로 주머니 받거나 보완을 해주었으면 문제가 덜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아무 반응이 없어 본인도 당황했고,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러한 본인의 발언 이후 갑자기 앵커가 서둘러 대답을 마무리하고 본인은 10분이나 일찍 방송을 마치게 되었다며 불쾌

하다는 주장이었음. 이는 명백한 방송국의 실수라고 생각함. 형식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나 기계적 중립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패널들의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으며, 패널이 할 발언의 방향을 미리 생각했었다면 그날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봄. 또한 설사 섭외의 현실상 그런 조합이 부득이었다고 한다면 패널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혹은 서정욱 변호사와 같은 성향의 분을 패널로 모셨다면 그에 상응할 정도의 상대 패널이 같이 맞받아 쳐주었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아예 서 변호사를 섭외하면 안 되는 거였을 것임. 결론적으로 패널 섭외와 관련해서 이날의 특수한 상황은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음(노영희 위원)

6) 기타 의견 및 긍정적 평가

- 주말 아침에 일주일간의 뉴스를 종합해 주는 보도 명품 리포트 맥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뉴스채널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뉴스를 뽑아서 상세히 정리하고 분석을 곁들인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다만, 전반적으로 뉴스 프로그램 메인 세팅의 색상 대비(contrast)가 너무 강렬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앵커들의 인상, 화장과 함께, 첫 인상이 산뜻하기는 하지만, 계속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효과는 부족하다는 느낌임(오준 위원장)
- 3월8일 뉴스 투나잇 프로그램에서 앵커들이 스탠딩 상태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포맷은 신선하고 전달력이나 뉴스의 생동감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최신용 위원)
- 뉴스 투나잇에서 안희정 지사의 자진 검찰 출두의 동기나 자진 출석이 향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 배우 조민기의 자살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나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가 출연하여 전문가 대담을 한 것은 시청자들이 이슈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했을 것으로 판단함(최신용 위원)
- 3월15일 고용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소위 명품제조사의 생산비와 관련된 기획은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생활에 매우 유용하였음(최신용 위원)
- 기본 자막 바탕 색깔이 오렌지/빨강에서 흰색으로 변한 것 같음. 훨씬 안정되어 보이고 차분해진 것 같음. 전체적인 화면 배치나 색감도 안정되어 보이고, 뉴스 자체도 더 신뢰가 느껴짐. 진행이나 보도하는 것도 짜임새가 있어진 것 같아서 요즘 뉴스 보는 것이 더 편안해졌음(하규섭 위원)

(끝).